별빛 아래 뱃놀이 즐기세 가을 밤 용연선상음악회

이달 15일 용연 일대서
용퍼레이드·길트기 등
용담동 주민 참여 확대
도립제주예술단 등 연주

용연선상음악회. 옛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용연의 정취를 재현한 행사다.

가을밤 별빛 아래 옛 사람들의 뱃놀이를 즐겨보자.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이 주관하는 '2018 용연선상음악회'가 이달 15일 제주시 용연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금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용연은 조선시대 취병담, 선유담 등으로 불렸던 곳이다. 인근 제주목관아의 제주목사와 묵객들이 뱃놀이를 했던 장소로 바위와 물의 경치가 어우러진 풍광이 빼어나다.

이번 행사는 용연이 자리잡은 마을인 용담동 주민 참여가 크게 늘었다. 해가 내려앉으면 시작되는 선상음악회만이 아니라 용담1·2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요제, 체험부스 운영, 용 퍼레이드 등이 오후 2시부터 이어진다.

음악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막이 오른다.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해금산조 이지윤, 국악가요 한금채, 취선악태평소브라스밴드의 태평소합주, 제주도립무용단 공연이 잇따른다. 소프라노 김미주, 테너 이성민, 제주탐라예술단, 어린이합창단 공연도 마련된다. 마지막 순서에는 10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관객과 더불어 '서우젯소리', '아름다운 세상'을 부른다.

식전공연도 준비됐다.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용담 1·2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꾸미는 용 퍼레이드, 용담 1·2동 민속보존회의 육지길트기인 '풍물놀이', 제주탐라예술단의 바닷길트기인 '용왕굿놀이'가 용연 포구 일대와 테우 선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오 제주문화원장은 "선상음악회는 18세기 병담범주(屛潭泛舟), 20세기 용연야범(龍淵夜泛)으로 이어지는 선인들의 풍류 공간인 용연에서 조선시대 제주 풍류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라며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대행사를 기획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19회째인 용연선상음악회는 1999년 용연달맞이선상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됐다. 용연선상음악회, 용연야범재현축제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치러오다 2011년 제12회부터 용연선상음악회로 바뀌었다. 문의 064)722-020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허영선 시인 제3회 김광협문학상

수상작 작년 출간 '해녀들'
"서사와 서정 아우른 수작"
시상식은 내달 21일 열려

허영선 시인

제주 허영선 시인이 제3회 김광협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학상을 주관하는 시 전문지 '발견'은 "김광협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독회와 토론을 거쳐 지난 8일 허영선 시인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지난해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시집 '해녀들'이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작에 대해 "서사와 서정을 아우르는 수작이다. 서사는 제주도의 비극적 역사를 씨줄로 삼고 서정은 제주해녀의 구체적 일상을 날줄로 삼아 질박하면서도 힘 있는 문체로 감동 어린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그 솜씨가 제주 토박이의 삶에서 육화된 결실이라는 점이 더욱 미덥다"고 평했다.

황학주 심사위원장은 "대상에 대한 생생하고 지극한 호명과 기존의 사람 연작시가 가지고 있는 발화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제주해녀의 존재를 차지게 구현해낸 점은 허영선의 진경"이라며 "제주 해녀를 단번에 한국 현대시의 중심부로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본심 심사위원은 문학평론가 유성호 이경호 이숭원, 시인 황학주가 맡았다.

시상식은 10월 21일 오후 3시 서귀포시 이중섭거리에 있는 서귀포관광극장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현재 제주4·3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허영선 시인은 1980년 '심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 '뿌리의 노래'가 있다. 이번 수상작 '해녀들'은 13년 만에 펴낸 세 번째 시집이다. 김광협문학상은 앞서 제1회 이하석 시인, 제2회 신영배 시인이 수상했다. 문의 02)2275-4212. 진선희기자

4·3 70주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 총회

17~20일 나흘간 제주 행사
4·3평화공원서 특별 예배
사전행사로 평화선교대회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 등에서 열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제주 4·3 70주년과 다가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과 함께해온 교회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참모습을 재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교단의 신앙유산인 문익환 장준하 서남동 박봉랑 탄생 100년에 맞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열정, 생명 존중의 신앙정신'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달 19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별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랜 세월동안 침묵하고 외면해온 한국교회의 역사적 행태를 반성하고 사실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주민들과 더불어 용서와 화해, 치유와 생명의 은총을 구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 앞서 이달 14일부터는 사전대회로 '통일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평화선교대회'를 진행한다. 15개국이 참여해 18일까지 이어지는 평화선교대회에서는 제주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 필리핀 등 고난의 역사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제주민 그리고 세계민들과 연대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평화를 향한 순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도심 무당벌레 예술텃밭 가꾸실래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농사·놀이·미술·여행 등
생태미술 프로젝트 진행

생태미술프로젝트로 꾸몄던 '무당벌레 꽃이 되다'.

제주시 도남동에 '무당벌레 예술텃밭'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무당벌레 형상의 꽃들이 피어나는 등 2005년부터 생태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공간이다.

메밀꽃 필 무렵, 내 친구 곶자왈 숨은 그림찾기, 콩당콩당 무당벌레란 이름으로 흙 위에 또 다른 생명체가 숨쉬었던 그 곳에서 또 한번 예술텃밭을 가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생태미술가 강술생씨가 섬아트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201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무당벌레 예술텃밭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11월 24일까지 토요일 오전 9시~낮 12시에 마련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농사, 놀이, 미술, 여행을 큰 주제로 도심 자연 안에서 먹고 놀고 느끼는 예술 체험으로 꾸며진다. 가족 텃밭 일구기, 수확한 작물로 슬로 푸드 요리하기, 자연놀이와 전통놀이, 500평 대지에 생태미술 담아내기. 방선문 등 우리동네 생태여행, 생태마을 여행 등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5가구(가족당 2인 이상)를 모집하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마다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이어야 한다. 문의 010-5282-3261. 진선희기자

아시아 연대감 나누며 제주서 미술 교류

제주문화포럼 교류전
대만·홍콩·말련 참여
아시아예술경영협회
두번째 한·중 교류전

제주와 아시아가 미술로 만난다. 아시아라는 연대감을 공유하면서 새삼 지역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은 '2018 제주 아시아 예술 교류전'을 연다. 제주는 물론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작가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담은 회화, 판화, 도예, 사진 등을 발표하고 교류한다.

주최 측은 "이번 교류 전시를 통해 아시아가 문화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다른 나라 참여 작가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청정한 제주 자연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창작에 영감을 주는 기회도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전농로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이어진다. 개막 행사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064)722-6914.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사단법인 아시아예술경영협회(이사장 박철희)와 공동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두번째 한·중 작가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엔 두 나라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2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왕칭송, 우밍중, 펑정지에 작품 등이 내걸렸다. 전시는 10월 9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1800-2002.

진선희기자

서귀포예당 9월 기획공연

뮤지컬 '스타라이트' 초청
발레스타들도 서귀포 찾아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서귀포예술의전당이 9월 기획 공연을 잇따라 준비했다.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과 7시 30분에는 대극장에서 뮤지컬 '스타라이트' 초청 공연이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무대다.

현재 활동 중인 밴드 스타라이트를 모델로 한 작품으로 밴드 멤버들의 삶과 꿈을 극화한 드라마와 무대에서 직접 부르는 노래가 어우러진 라이브 밴드 뮤지컬이다. 그룹 시나위의 보컬 출신 작곡가인 밴드 리더 조범준이 직접 작곡해 출연하고 밴드 멤버들이 실제 공연을 펼친다. 입장료는 1층 1만5000원, 2층 1만원으로 10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오는 22일 오후 7시에는 대극장에서 국내·외 스타 발레리노·발레리나 초청 공연을 펼친다.

제주시티발레단(단장·예술총감독 김길리) 주최로 개최되는 '발레스타 갈라쇼 인 서귀포'는 클래식 발레에서 새로운 창작발레까지 발레에 대한 새로운 환상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용을 전공한 배우 최필립의 작품해설과 워싱턴발레단·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역임한 김현웅 등 국내 무용수들, 도쿄시립발레단 오카다 고메이와 사이토 준, 프라하 국립발레단의 조바너 아담과 프리호도바 라카 등 유명 해외 무용수가 출연해 '다이애나 악테온', '백조의 호수' 등과 제주 작곡가인 문효진의 피아노 연주로 제주의 삶과 문화를 소재로 만든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예매는 14일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매표소나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760-3365. 조홍준기자

청년방일단 참가 학생 모집

일본영사관 내달 26일까지

주제주 일본총영사관은 '일본정부초청 한국청년방일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JENESYS)'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한국청년방일단은 오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2019년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9박10일간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일반전형을 통해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4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일본어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연수기간 일본 체류 경험이나 영상을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도내 고교생과 대학생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일반 전형 접수 기간은 10월 26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다.

주최 측은 "이번 연수는 한국, 일본 두 나라 청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도내 고교생과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064)710-9523. 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2억보증보험가입업체

let's go!! 가자!! 세계로!!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제주직항] 먹방+온천욕♨
유후인/벳부/후쿠오카/기타큐슈 3일
9/12 590,000 투어마일리지 5,900마일 적립예정
9/15,17,19 690,000 투어마일리지 6,900마일 적립예정
9/21,22,24 1,190,000 투어마일리지 11,900마일 적립예정
#큐슈 온천여행 #먹방여행 #료칸+카이세키식 체험

[제주직항] 실속온천여행♨
후쿠오카/유후인/벳부/기타큐슈 4일
9/14 890,000 투어마일리지 8,900마일 적립예정
#후쿠오카 시내호텔 #특급로얄호텔 #료칸+카이세키식 체험

★가성비최강★ [윌드체인특급호텔]
북 경 4일
9/13,20,27 10/4,11,18 499,800 투어마일리지 4,998마일 적립예정
〈비자 무료 이벤트〉 월드체인특급3박/만리장성/자금성/서커스

★스페셜★ [특급3박+노쇼핑]
북 경 4일
9/12,20 10/4,11,13,18,25,27 589,800 투어마일리지 5,898마일 적립예정
〈특급호텔 3박+노쇼핑〉 서커스/발마사지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6명특가] 말레이완전정복
쿠알라룸푸르/말라카/겐팅 5일
9월-11월 매주 화,토출발 72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7,290마일 적립예정
〈특급호텔 4박〉겐팅하일랜드+왕궁/메르데카광장/트윈타워+세인트폴성당/스타더이스

[6명특가] 두나라여행
쿠알라룸푸르/말라카/겐팅+싱가포르 6일
9월-11월 매주 월,화,수,토 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9,990마일 적립예정
〈특급호텔 4박+준특급호텔 1박〉겐팅하일랜드+센토사섬/보타닉가든/주롱새공원+왕궁/이슬람사원

방콕/파타야 5일
남들보다 특별한 방콕/파타야 5일[초특급]
8/31 -10/24 매일출발 790,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08적립
〈쇼핑3회 제한〉+전통안마2시간+알카자쇼+런치크루즈+왕궁

프리하게방콕 방콕/파타야 5일[초특급]
8/31~10/24 매일출발 699,600 투어마일리지 약 6,996적립
◆넉넉한 자유시간+쇼핑3회◆ 런치크루즈+전신안마1시간

Amazing Thailand 방콕(초특급)/파타야[특급] 5일
8/3 ~ 10/24 매일출발 660,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96적립
◈알카자VIP+씨푸드+일식뷔페+전통안마◈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다이어트홍콩!
홍콩[특급호텔] 4일
8월부터 ~10월 매주 목,토 출발 506,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068적립
피크트램/빅토리아산정+자유일정

1+1 ♥디즈니+오션파크♥
홍콩 4일
8/11부터~10월31일 매주 목,토 출발 714,4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144적립
[입급호텔] 〈디즈니랜드+해양공원〉 아이언맨 어트랙션 즐기기, 피크트램/마담투소+점보레스토랑

삼색여행
홍콩/심천/마카오[특급호텔] 4일
8월부터~10월 매주 목,토출발 836,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368적립
피크트램/빅토리아산정/성바울성당/세나도광장+심천민속촌/민속쇼+카지노체험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1일 자유 실속여행
오사카/나라 4일 (세미더블)
8/19~10/30 매일출발 694,6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46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호텔 3연박〉
★교토 or USJ 선택★+오사카성/동대사/나라마치

모두DIY 4명출발/내맘대로즐기는
오사카 4일 (세미더블)
8/19~10/30 매일출발 694,4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44적립
〈드라이빙 가이드 1일 포함〉
★동일호텔 3연박, 전일 자유일정 가능(1일 가이드 포함)

모두DIY 실속여행
동경/하코네/요코하마 4일
8/28~10/27 매주 목,토 출발 993,4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34적립
〈기사/가이드경비 포함+동경 시내투어or디즈니랜드 택1〉
★요코하마/하코네국립공원+모리노유온천♨

모두투어 연동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일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하여야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단계: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여행금지 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예멘(2011년 6월 29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2016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2016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